

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 10년동안에 140만 kW분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전을 정지할 예정이어서 280만kW분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번에 정부에 제출된 보고서는 중앙가스·전력청과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검토한 후 각각 정부에 권고서를 제출, 정부는 이것을 받아 12월 중순쯤에 최종적인 에너지정책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 인도

### 新規原電 建設計劃 發表

인도는 Tarapur에 최초의 500MW급 가압중수로(PHWR) 2기와 인도 최남단에 소련 PWR 2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인도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Srinivasan씨가 밝혔다.

지난 10월 25일 봄베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신규 PHWR의 건설은 국내 설계에 의해 기존의 250MW PHWR발전소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 발전소는 제9차 5개년계획(1995~2000) 중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이외에 서부 Rajasthan주의 Rawabhata에 4기의 500MW PHWR를 추가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Tarapur에는 이미 2기의 235MW GE사 BWR이 가동중인데 이 발전소는 1974년 인도의 핵폭발시험으로 미국으로 부터의 연료공급이 중단된 후 기술적인 문제로 각각 160MW로 용량을 줄여 운전해왔다. 이 유니트들은 당초 수명을 25년으로 잡았으나 국산 산화물 복합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본다고 Srinivasan씨는 말했다.

2기의 소련 PWR 발전소에 대해서는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인도는 이미 IAEA에 대해 이에 대한 보장조치를 요청했고 소련과의 계약체결은 11월 고르바초프수상이 인도

를 방문할 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74년 이후로 처음 수입되는 이 대형 발전소는 2기의 VVER-1000으로 이루어지며 건설후보지는 Tamil Nadu주의 인도 최남단에 위치한 Kanyakumari 근처의 Kudankulam이 될 것이라고 10월 23일 Srinivasan씨가 밝혔다.

## 소련과 VVER-1000

### 借款協定 締結

고르바초프수상과 간디수상간에 1,000MW VVER 2기의 턴키방식 건설을 위한 약 60억 루블(약 80억 달러)의 차관협정이 11월 20일 맺어졌다.

그러나 소련의 Atomenergoexport사와 인도의 구매기관(원자력성 또는 신설된 원자력발전회사)간의 최종계약이 아직 남아있다. 인도의 원자력발전회사는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작년에 설립된 민간업체이다. 차관협정의 상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소식통에 의하면 이자율 2.5%에 루피화와 대응무역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돼있다고 한다.

이 PWR는 전적으로 인도정부에 대한 소련 차관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공기는 6~7년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발전소 위치는 Tamil Nadu주 남부의 Kudankulam이 될 것이다. 발전소 가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브라질

### OSART 評價作業을 自體實施

11월초 서독 뮌헨에서 열린 IAEA 심포지움에서 원자력규제자회의는 국제적 차원의 원자력안전 규제제도를 창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IAEA의 Blix 사무총장은 앞으로 각국의 자체 규제기관에 의한 「대등한 평가작업」이 IAEA의